

-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너희는 이 불순한 세계에서 지각의 요가를 떼어내고 무한한 산야시가 되어야 한다. 산야시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순수하고 확고한 요기가 된다는 뜻이다.
- 질문:** 너희가 어떤 단계를 가질 때 마야의 폭풍이 끝나겠느냐?
- 대답:** 너희들의 지각의 요가가 “나의 것”, 즉 “내 남편”, “내 아이들” 등의 의식과 끊어지는 때이며 그러면 “나의 것은 쉬브 바바 한 분 뿐, 다른 누구도 없네”라는 것이 너희 지각에서 확고해질 것이다. 너희의 지각의 요가가 아버지 한 분과 완전하게 연결되면 그때는 마야의 폭풍이 끝날 것이다.
- 노래:** 아침 이른 시간에 누가 내 마음의 문간에 오셨나?

옴 산티. 신이 말한다. 영혼들의 아버지가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라고 불리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이해했다. 아버지가 직접 설명하는데, 나는 콤팩한 신체의 형태를 갖지 않는다. 영혼에 대해 이마 가운데에 머무는 별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지고의 영혼이다. 그에 대한 찬양은 더 크다. 그는 지식의 대양이지만 그런 형상처럼 크지는 않다. 그가 만일 그렇게 크다면 그 자신을 이 몸 안에 밀어 넣을 수 없을 것이다. 쉬바링검을 큰 형체로 만들면 그때 그들은 그것을 숭배한다. 그들은 그가 엄지손가락 모양이라고 얘기한다. 영혼은 영혼을 의미한다. 다만 그는 지고의 영혼이라 불리고 지고의 거주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지금 이때가 악마의 세계, 사악한 사회라는 것을 너희들은 안다. 황금시대에는 바라트에 신인들의 왕국이 있었다. 그것이 지금은 사악한 왕국이다. 그들이 뭘 먹는지 보라! 고기를 먹고 술 등을 마시는 것은 불순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사람들은 심지어 이를 이해조차 못한다. 학교에서도 역시 일부는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일부는 라조구니한 생각을 하며, 나머지들은 타모구니한 생각을 한다.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자들은 붓두라고 불린다.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들 중에는 등수대로 마하라티, 기사, 설명을 잘 할 수 없는 보병들이 많다. 완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탓에 그들은 계속해서 봉사에 역행한다. 누가 지식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 그는 그 정도만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등수대로다. 때때로 그들은 여전히 실수한다. 너희 자녀들은 신인이 되고 있다는 도취감을 가져야 한다. 아버지가 친히 이르는데, 나는 불순한 자들의 세상에 들어온다. 황금시대에 이 사람은 나라얀이었고, 나는 그를 다시 한 번 보통사람에서 나라얀으로 만들려고 지금 그의 몸에 들어왔다. 그는 첫 번째로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이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의 숭배자가 되었다. 이 사람은 온갖 배역을 다 맡는다. 이것은 나에게 정해진 몸이며, 바꿀 수 없다. 내가 기회를 가끔 다른 누구에게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드라마는 미리 정해져 있다. 이것에서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다. 바바가 이르는데, 나는 불순한 자들의 세상에 들어오지만, 만일 너희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불순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기분 나빠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가 사악한 사회의 일부라는 말을 신이 하면 이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신”은 브라마, 비슈누, 샹카르, 크리슈나가 아닌 무체인 신이라는 의미다. 그가 이르는데, 지고의 영혼인 나는 너희와 똑같다. 신이 이르는데, 나는 너희에게 라자 요가를 가르치려고 왔다. 요가에 대한 찬양은 매우 크다. 많은 요가 아슈람들이 열렸다. 그들은 거기서 하타 요가를 가르친다. 그러나 요가의 힘으로 너희들은 세상 전체를 천국으로 만든다, 즉 세상을 변모시킨다. 세상 전체가 다 요가를 하며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요가에 대한 찬양이 참으로 많으며 요가를 통해서 바라트가 특히 천국이 된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틀림없이 천국을 창조한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오직 나만이 와서 너희가 신인이 되는 행동을 가르친다. 이것은 아주 쉽다. 저 사람들은 많은 수의 희생의 불을 지핀다. 여기에 너희들에게도 희생의 불 등이 있느냐? 너희들은 오직 향기를 위한 향만 태운다. 그것 말고는 여기에는 의식이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 스스로를 소개하는데, 나도 역시 너희들 같은 영혼이지만, 나는 환생하지 않는다. 나는 생을 취하지만, 죽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나의 탄신일을 축하한다. 나는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이 몸에 들어왔다가 가곤 하므로 이것은 죽음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신인으로 만들려고 온다. 그 다음은 누가 와서 공부하느냐에 달렸다. 지난 사이클에 공부했던 자들이 와서 다시 공부할 것이다. 너희들은 오래 전에 나와 헤어지게 되었던,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찾은 바로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다. 다른 이들은 84생을 취하지 않는다. 우리는 온전히 84생의 사이클을 한 바퀴 다 도는 이들이다. 여러 생을 취해야 한다면 사람들은 무척 지겨워한다. 그들은 84생의 사이클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더 행복해질 만큼 강하고 용감하다. 84생의 이 사이클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지구의 통치자들이 된다. 그들은 국기에 사이클을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물레로 만들었다. 그에 비하면 너희들의 문장(紋章)은 정확하다. 꼭대기에는 쉬브 바바, 그 아래 트리무르티가 있고 사이클도 역시 정확하다. 너희들의 쉬바 깃발은 완전히 정확하다. 두 가지 유형의 버림이 있다는 것이 너희들에게 설명되었다. 하나는 고립의 길을 위한 버림이며 그들은 숲으로 간다. 그것은 절반의 버림이다. 너희들의 버림은 완전한 버림이다. 무엇에 대한 버림이냐? 너희들은 사악한 세상

전체를 버린다.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구루”, 너희는 그 모든 “나의 것”에 대한 의식에서 지각의 요가를 끊는다. “나의 것은 쉬브 바바뿐, 다른 누구도 없다.” 너희가 이 단계를 만들기까지는 폭풍들이 계속 올 것이며 너희는 계속 동요될 것이다. 아버지는 사악한 세계 전체를 버리도록 너희를 고취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어차피 전부 다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을 저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너희는 친척들과 살고 있지만, 그들 모두를 보면서도 너희의 지각은 저 위에 연결되어 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내가 누구와 정욕에 탐닉하거나 화를 내겠느냐?” 이것은 아주 좋은 전술이지만, 단지 그것이 너희의 지각에 자리 잡아야만 그렇다! 이것은 라자 요가라고 불린다. 너희들은 요가를 해서 왕국을 차지한다. 그들의 요가는 하타 요가다. 이런 것은 심오한 요점들이다. 세상에는 요기들이 많지만 바바가 이르는데, 나와 요가를 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나와 요가를 하지 않고, 그들은 내가 거주하는 장소인 브람 원소와 요가를 한다. 바라트의 사람들이 거주지인 힌두스탄을 자기들의 종교라고 여겨온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자기들이 브람의 자녀라고 여긴다. 그러나 실은 그들 자신을 자녀라고 여기는 것도 아닌데, 만일 그들이 자녀라면 유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소에 합쳐질 것이라고 얘기한다. 바바는 그 모든 것을 경험했다. 그는 여러 산야시들과 구루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경험했다. 그들은 또 아르주나가 여러 구루들을 모시는 것으로 묘사한다. 너희들 모두 아르주나다. 지금 이때에는 온 세상에 라반의 왕국이 있다. 세상 전체가 랑카다. 실론의 섬만이 랑카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유한한 랑카인 반면, 온 세상 전체가 무한한 랑카다. 지금은 온 세상에 라반의 왕국이 퍼져 있다. 라마의 왕국에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라마의 왕국인 때에는 라반의 왕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저 아래로 내려간다. 그 다음에 라반의 왕국이 오면 그때는 라마의 왕국이 밑으로 내려간다. 이것은 드라마다. 사이클이 돌면서 황금시대가 위로 올라온다. 동시대와 철시대는 내려가고 황금시대와 은시대가 저 밑에서 위로 올라온다. 이것은 단지 사이클의 문제일 뿐이다. 그들이 비록 그렇게 써 놓았지만 그것이 바다 밑에 가라앉거나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이런 것은 이해되어야 하는 매우 심오한 내용들이다. 이것에서 순수성이 첫째이며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요가도 역시 있어야 한다. 이것은 완전한 버림이라 불린다. 지각의 요가를 이 세상에서 떼어내라. 너희들 중에서도 겨우 몇몇만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 너희 모두가 이해한다면 너희는 지식의 갠지스 강들, 작은 강들, 운하들이 될 것이다. 너희가 연못이 되어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만 해줘도 너희가 뭔가를 이해했다는 사실이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심지어 집에서조차 설명할 수 없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너희가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 자는 방 하나 뿐이라 해도, 집에 작은 기타 파트살라를 열 수 있다. 일단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걸 치워놓고 거기서 수업 준비를 해라. 한 평의 땅에도 너희는 그렇게 큰 병원을 열 수 있다. 부유한 자들은 젖혀두어라. 아버지는 가난한 자들의 주님이다. 부자들은 이것이 자기들에게는 천국이라고 얘기한다. 바바가 이르는데, 오케이, 너희의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라! 내가 너희들에게 뭘 줘야겠느냐? 기부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것이다. 중요한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야 된다면 그들은 불쾌하게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바바가 이르는데, 너희들은 너희의 궁전에서 살아도 된다.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은 나에게 올 수 있다. 너희가 이 얘기를 남들에게 들려줄 수 없다면 너희는 작은 호수조차도 아니다. 너희는 큰 강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마마와 바바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집에서 아무 얘기도 전할 수 없다면 너희는 심지어 한 웅크의 물조차도 아니다. 바바는 지식의 갠지스 강들 앞에서 즐겁다. 일부는 바바의 말을 직접 듣고 매우 행복해지지만 여기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그들의 도취감도 역시 내려간다. 그 다음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다시 잡담을 시작한다. 바바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일부는 바바를 만나려고 와서는 남편과 아이들에 대해 얘기한다. 너희의 남편은 어디서 왔느냐? 너희는 천국에 가려고 여기에 오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나의 것”이라는 의식에 갇혀 있다! 오케이, 이 정도의 처방이면 충분하다. 너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분량만 주어야 한다. 바바는 너희들에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했다. 너희들은 요가로 천국을 세우고 있지만 주권을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 두 가지 과목이 있다. 바바도 역시 요가하며 머물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그는 “기억하지 말고, 잊지 마라!”라고 얘기한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테.

#### 실천 요지:

1. 이 낡은 세상을 완전히 버려라. 순수성과 요가, 두 과목에서 1등을 차지해라.
2. 지식의 갠지스강이 되어 불순한 자들을 순수하게 만드는 봉사를 해라. 마마와 바바를 따르고, 큰 강이 되어라.

#### 축복: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자가 되어, 때에 대한 지식을 인식하며 모든 의문을 끝내라.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자이면서 자아에 대한 비전을 본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세계 사이클에 대한 비전을 본다. 드라마의 비밀들을 아는 자들은 변함없이 행복한 상태에 머문다. 드라마 안에서 자아는 자애롭고 때도 역시 자애롭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왜?”나 “무엇이?” 같은 의문들을 가질 수 없다. 자아를 보고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자가 되는 자들은 쉽게 계속 전진한다.

#### 솔로건:

모든 영혼에게 진실되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에 대해 순수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 마테슈와리의 더 없이 귀중한 말씀

### 1) 신이 편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

신의 말씀은 모든 경전들 중의 보석인 기타에 “자녀들아, 승리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지고의 영혼의 고귀한 말씀입니다. “나는 히말라야 산에도 들어있고, 칼리 또는 칼리야라고도 알려져 있는 뱀 속에도 들어있다.” 산들 중에서는 카일라시 산이 제일 높다고 일컬어지고, 뱀들 가운데서는 칼리 뱀이 제일 크다고 불립니다. 이것은 만일 모든 뱀들 중에서 신이 검은 뱀에만 들어 있다면 그가 다른 모든 뱀들 안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일 신이 전체에서 최고로 높은 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보다 낮은 산에는 그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승리가 있는 곳에서 태어난다”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말은 “패배가 있는 곳에는 내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신은 편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한편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의 24 화신을 보여왔듯이, 신이 여러 형태로 강림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이 물고기와 악어에도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된 지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신이 어디에나 있다고 이해해온 반면, 지금 철시대에 어디든 다 존재하는 것은 마야입니다. 그러니 신이 어떻게 모든 곳에 다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기타에는 또 “나는 마야 안에는 머물지 않는다” 라는 말도 역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신이 어디에나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2) 비물질세계는 영혼들의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

비물질세계에 대해 얘기할 때 “비물질”이 형태나 모습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가 비물질세계에 대해 얘기할 때는, 틀림없이 세계가 있긴 하되 물질세계와 같은 방식의 형태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은 무체이며, 그에게는 미묘한 형태 (한 점의 빛)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혼인 우리들과 신의 나라는 비물질세계입니다. 우리가 “세계”라 할 때 그것은 그 세계가 거기 있고 우리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그러한 이유로 그것은 세계라고 불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의 형태가 영원한 빛의 원소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은퇴한 집이라 불리는 신의 주거지, 즉 거주 장소입니다. 우리들은 신의 집을 신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세계는 서틀 리전이고 브라마, 비슈누, 샹카르가 각자 천사의 형태로 거기에 머물며, 여기 이것은 둘로 갈라지는 물질세계입니다. 하나는 반 사이클 동안 오직 행복, 순수성, 평화뿐인, 악덕 없는 천국입니다. 다른 하나는 슬픔과 평화롭지 못함이 있는 사악한, 철시대의 세상입니다. 이 둘은 어째서 두 세계라고 불릴까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은 신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신의 말씀은 “자녀들아, 나는 슬픔의 세계는 창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한 세계는 행복의 세계다. 그것이 지금은 슬픔과 평화롭지 못한 세상이다. 사람들이 제 자신과 지고의 영혼인 나를 망각해버린 탓에 그들은 이러한 카르마의 빛에 대해 고통 받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행복과 자선의 세상이 있을 때 세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은 틀림없이 신인들의 거주지라고 얘기하므로 거기에는 온갖 유형의 활동이 다 있지만, 거기엔 악덕들에 대한 창조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르마의 굴레가 없습니다. 그 세계는 카르마의 굴레가 없는 천국의 세상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는 비물질세계, 또 다른 하나는 서틀 리전, 세 번째의 것은 물질세계입니다. 음 산티.